전북농협은 쌀 소비 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임직원이 동참하는 '전북쌀 소비촉진 1·2·3운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민 하루 두 끼 '밥심으로'

전북농협 임직원들, '전북쌀 소비촉진 1·2·3 운동'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쌀 소비 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임직원이 동참하는 '전북쌀 소비촉진 1·2·3운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1·2·3운동은 1달에 20kg 쌀 2포씩 3개월간 자율적으로 구매(선물)하는 쌀 소비촉진 운동으로 지난 6월부터 범 농협 임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다.

작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한 80kg 기준 17만5,000원까지 폭락했다.

하지만 쌀값 하락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쌀 소비 부진에 따른 2021년산 재고과잉 상황이다.

이에 전북농협은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북쌀 지키기 릴레이 챌린지, 쌀 나눔 행사, 고객사은품 쌀 활용, 범 농협 쌀 구매운동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 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생산비가 크게 증가된 반면 수확기 벼값 하락이 예상되어 농업인이 절망하고 있다"며 "농업인을 위해 최소한 하루 두 끼 식사는 밥을 소비하여 주시고 도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친구에게 전북쌀을 선물해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농협 시군지부장들 "쌀 소비촉진 운동 동참"

전북농협은 지난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쌀 소비촉진 및 농정관련 당면현안 전달을 위한 시군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쌀 소비촉진 및 농정관련 당면현안 전달을 위한 시군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쌀 재고 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협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전 시군의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운동 전개와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전북쌀을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제정 농정활동 전개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쌀 소비촉진을 위해, 도민 대상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 운동, 도내 기관장 대상 쌀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1·2·3 운동(1인, 쌀 2포(20kg), 3개월간 구매)' 등 100만포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인 전북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도민과 전 임직원이 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낙농협회, 오늘부터 12일까지 '유업체 규탄 집회' 개최

농식품부 차관, 낙농 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열고
"정부 추진 중 낙농 제도 개편 조속 마무리해야"
용도별 차등 가격제 두고 낙농협회와 갈등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5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안성시 소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낙농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낙농가의 원유 납품 물량을 일정량 보장하고,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낙농협회는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낙농협회와 협상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설명회에서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현장 농가들을 상대로 제도 개편한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낙농협회는 8~12일 매일유업과 빙그레를 대상으로 원유가격 협상을 촉구하는 '유업체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9일에는 협상 거부를 주도한 한국유가공협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원유가격 조정 기일인 8월 1일이 지나도 유업계와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낙농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낙농협회 관계자는 "한국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 조정기일인 8월1일이 지나서도 연동제 폐지 및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낙농진흥회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공공기관 노조, 혁신안 반발 31일 용산서 집회 개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민영화' 수순으로 규정짓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부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노조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한국, 민주)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투쟁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7일부터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양대 노총 간부 1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부, 추석 선물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관원, 명절 앞두고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추진
전통시장 등 대상… 농약 분석성분 320→463종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멜론, 표고버섯, 밤, 대추, 도라지, 시금치 등이다.

농업인에게는 추석 명절 성수기에 맞춰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잔류 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부적합 농산물 6건을 적발해 출하 연기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지난 5일 남원시를 방문해 최경식 남원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소개와 지사 일반현황,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남원 농어촌공, 최경식 남원시장과 업무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지난 5일 남원시를 방문해 최경식 남원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소개와 지사 일반현황,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충호 지사장은 공사가 남원시 전체면적의 47%를 관리하고 있고, 저수지 46개소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99개소를 남원시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이상기후로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해 유지관리 지방비(시비)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남원시로부터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을 위·수탁 협약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공기술, 용수관리, 지역개발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사가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농정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남원시와 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농업인의 영농편익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잘라낸 가지·잎 땅에 꽂아 뿌리 내려 새 개체 만들어요

정읍산림조합 '그린 우드 아카데미'
수국 삽목 실습·관리요령 등 진행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장학수)에서는 Green Wood 아카데미 교육을 30여명의 정읍시민과 여성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Green Wood 아카데미는 정읍시민과 정읍산림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산림경영지도 강좌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린우드아카데미는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숲 관련 교양강좌로 정읍산림조합 자체 강사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숲, 조경수, 유실수, 공기정화식물, 자생화,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강좌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산림조합 김영호 박사의 '수국 삽목 실습 및 관리요령'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수국 삽목 요령과 관리요령 등 수국의 삽목 번식 기술을 습득하고 본인들이 삽목한 봇트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삽목은 가지, 뿌리, 잎 등의 일부를 잘라내어 땅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하여 새로운 식물 개체를 만들어 가는 번식방법이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화목류 삽목을 내 손으로 직접 번식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전문가의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쉽게 체득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고, 횟수를 더 할 수 록 나무에 대한 이해도와 실습을 통하여 나무 키우는 기술력이 향상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며, 다음 교육도 기다려진다"고 했다.

한편 장학수 조합장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기초 교육인 그린우드 아카데미와 더불어, 지난 1월 조직된 조경수작목회도 각 분야별 심층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읍조경수작목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읍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경수 생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종자업계 전문인력 양성 '종자 품질검정 과정' 운영

국립종자원은 종자 업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종자 품질검정 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종자 품질검정 과정은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 문을 연 이후부터 현재까지 18개의 종자 기업과 민간 등 총 42명이 교육훈련을 수료했다. 아울러 수료자 90.5%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과정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을 넘어 생산된 종자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종자를 조작·가공해 보는 등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한 종자검정기술, 종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종자가공 처리기술, 종자 내 병원체 검출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올해는 이달 22~23일, 11월7~8일 2회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봉열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본 과정은 국제 종자 검정 기준에 따라 모든 실험과 실습이 진행된다"며 "종자 시료 채취부터 가공 등 고품질 종자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은, 완주군에 시원 키트 나눔

전북은행이 지난 5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더위에 취약한 주변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시원(COOL) 키트 10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 고현상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장이 참석했다.

시원(COOL) 키트는 쿨스카프, 쿨매트, 선풍기로 구성돼 있으며, 더위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민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에 감사를 표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고산농협, 조합원 대상 무료 한방진료 실시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를 진행했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상산고 동문회 봉사단(동문 한의사, 지도교수, 소속학생) 30여명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한방진료는 조합원 개별 상담을 통해 침을 맞거나 부황 및 테이핑 시술과 함께 한약 처방 등 조합원 및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영석 조합장은 "힘든 농사일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함께 해준 봉사단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